

뉴스 기사 제목에 나타난 ‘○○女’ 와 ‘○○男’ 의 사용 양상 비교

1990–2021년 사회면 기사를 중심으로

박수지

서울대학교 언어학과

2021년 11월 6일 토요일

서론

‘○○녀’ 현상

- 기사 제목에 ‘트렁크녀’, ‘고소녀’ 등 ‘○○녀’ 를 남발하는 현상 및 그에 대한 비판이 2016년에 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이러한 언론 보도에서 ‘○○녀’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음을 전제한다.
- 이는 경험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계량적으로 입증된 적은 없다.

개괄

- 이 연구에서는 기사 제목에 포함된 ‘○○녀’ 의 개수를 실제로 세어 보고...
- ‘○○녀’ 현상의 존재 여부와 그 양상을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자료 수집

수집 방법

검색 사이트 빅카인즈(<https://www.kinds.or.kr>)

검색어 男 OR 女 OR 女

■ 女 OR 女

수집 범위

기간 1990년 1월 1일 – 2021년 9월 30일 (21년 9개월치)

대상 총 54개 언론사 사회면

■ 중앙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전문지

연구 대상 및 방법

빈도 계산

세 가지 척도

- 1 기사 개수(Document frequency): ‘男’ 혹은 ‘女’를 제목에 포함한 기사의 개수.
 - 제목에 ‘男’ 혹은 ‘女’를 사용한 기사가 얼마나 되는가?
- 2 출현 횟수(Token frequency): ‘男’ 혹은 ‘女’가 제목 전체에서 출현한 횟수.
 - ‘男’ 혹은 ‘女’를 포함하는 표현이 얼마나 빈번하게 나타나는가?
- 3 어휘 가짓수(Type frequency): ‘男’ 혹은 ‘女’이 쓰인 표현의 가짓수.
 - ‘男’ 혹은 ‘女’를 포함하는 표현이 얼마나 다양하게 나타났는가?

성별 표현의 유형 분류

형태에 따른 분류

‘男’ · ‘女’ 의 자립 여부에 따른 분류

(1) 신문 기사 제목에 ‘男’ 을 포함한 경우

- 자립으로 쓰인 예: “내 집인 줄 알고” 이웃집 들어가 성추행한 男
- 접두사로 쓰인 예: “트럭도 불끈 들어올린다” 여성 위한 첫 男리얼돌 출시 논란
- 접미사로 쓰인 예: ‘아몰랑’ ‘김치녀’ 여성혐오男, 실생활에선 ‘루저’

(2) 신문 기사 제목에 ‘女’ 를 포함한 경우

- 자립으로 쓰인 예: ‘강제 키스’ 성폭행범 혀 깨물어 잘리게 한 女 정당방위 인정
- 접두사로 쓰인 예: 반월공단 도로변 女변사체
- 접미사로 쓰인 예: 검-경, ‘성추문 피해女’ 사진유출 이번엔 ‘공조수사’

성별 표현의 유형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한자 개수	제목에 해당 한자 를 포함하는 기사 개수	자립형태소로 사 용한 기사 개수	접두사로 사용한 기사 개수 (男○○·女○○)	접미사로 사용한 기사 개수 (○○男·○○女)
男	33628	11107	4164	17582
女	53272	12382	21334	17828

‘男’과 ‘女’의 형태소 유형별 기사 개수 (54개 언론사 통합검색)

관찰

- ‘男’과 ‘女’의 차이는 대부분 접두사에서 발생하였다.

성별 표현의 유형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의문

- 통념과 달리 ‘○○女’와 ‘○○男’의 빈도에 차이가 없을까?

새로운 관찰

- ‘○○’은 크게 연령 표현과 비연령 표현으로 나눌 수 있다.

접미사 ‘男’ · ‘女’ 와 결합하는 명사 어기에 따른 분류

- (3) 연령 표현 예시: 60대男, 30대女 – 정보전달형
- (4) 비연령 표현 예시: 주폭男, 폰팅女 – 조어형 → 관심유도형 (김관규 · 김진원 2010)

성별 표현의 유형 분류

내용에 따른 분류

	연령 표현 출현 횟수	비연령 표현 출현 횟수	전체 표현 출현 횟수
○○男	10890(74.36%)	3755(25.64%)	14645(100.00%)
○○女	9142(61.00%)	5845(39.00%)	14987(100.00%)

$$\chi^2 = 603.06, df = 1, p < 2.2 \times 10^{-16}$$

‘○○男’과 ‘○○女’의 어기 유형별 분류

관찰

- 비연령 표현의 경우 ‘○○女’가 ‘○○男’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더 많다.

성별 접미사 사용 양상의 연도별 분석

성별 접미사를 포함하는 기사 제목의 추세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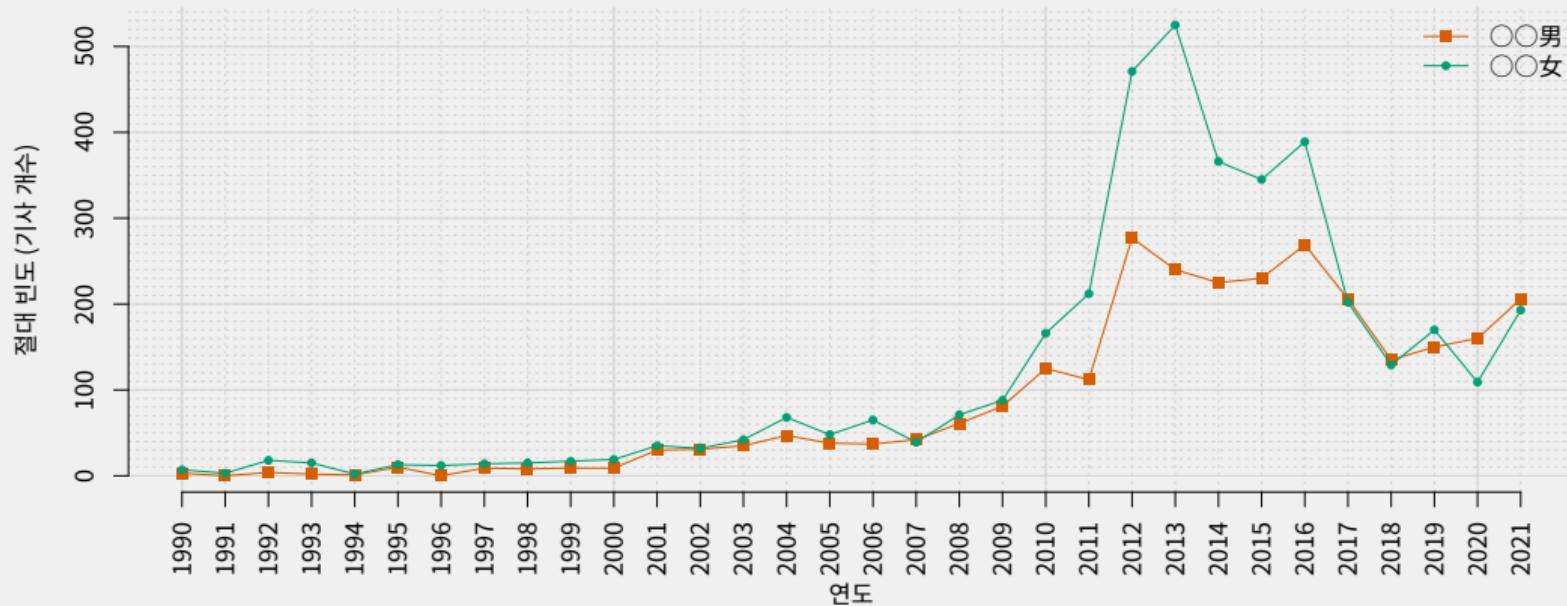
의문

- 연령 표현을 제외한 ‘○○男’ 및 ‘○○女’ 를 제목에 포함한 기사의 양이 지난 30여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男’ 의 절대 빈도) = (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중 제목에 ‘○○男’ 을 포함한 것들의 개수)
(‘○○女’ 의 절대 빈도) = (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중 제목에 ‘○○女’ 를 포함한 것들의 개수)

성별 접미사 사용 양상의 연도별 분석

성별 접미사를 포함하는 기사 제목의 추세 변화



‘○○男’ 및 ‘○○女’를 포함한 기사 개수의 연도별 변화

성별 접미사 사용 양상의 연도별 분석

성별 접미사를 포함하는 기사 제목의 추세 변화

문제

- 특정 연도에 기사가 많이 발행되었기 때문에 제목에 ‘○○男’이나 ‘○○女’를 포함한 기사가 많이 집계된 것은 아닌가?

대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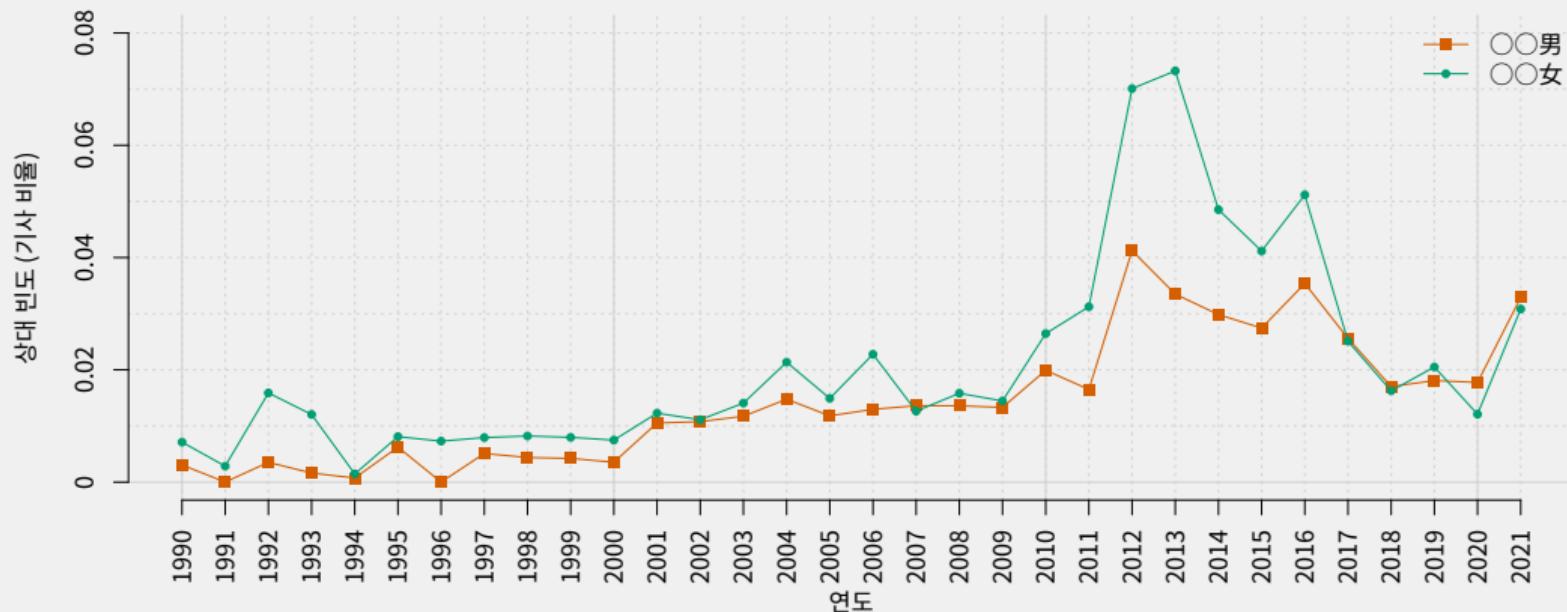
연도별 전체 기사량을 고려한 상대 빈도를 도입한다.

$$(\text{‘○○男’의 상대 빈도}) = \frac{(\text{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중 제목에 ‘○○男’을 포함한 것들의 개수})}{(\text{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전체 개수})}$$

$$(\text{‘○○女’의 상대 빈도}) = \frac{(\text{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중 제목에 ‘○○女’를 포함한 것들의 개수})}{(\text{해당 연도의 사회면 기사 전체 개수})}$$

성별 접미사 사용 양상의 연도별 분석

성별 접미사를 포함하는 기사 제목의 추세 변화



‘○○男’ 및 ‘○○女’를 포함한 기사 비율의 연도별 변화

성별 접미사 사용 양상의 연도별 분석

성별 접미사를 포함하는 기사 제목의 추세 변화

현상 및 배경

- 1990년대** 1990년대에 사회면 기사 제목에서 한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1993년 14.6%에서 1996년 8.8%로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정동환 1996), 한자 ‘男’과 ‘女’의 사용은 줄어들지 않고 꾸준히 유지되었다.
- 2000년대** 이 시기부터 ‘딸녀’(2003년), ‘된장녀’, ‘개똥녀’(2005년) 등 ‘○○녀’ 꼴의 신조어가 인터넷 게시판과 댓글에서 만들어지고 주목받았다.
- 2010년대** 뉴스 기사 제목에서는 2010년에 들어서서 ‘○○男’과 ‘○○女’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다. 특히 2012–2016년 구간은 절대 빈도를 상대 빈도로 보정한 후에도 다른 기간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성별 접미사 사용 양상의 연도별 분석

성별 접미사를 포함하는 기사 제목의 추세 변화

관찰

- 그림의 대부분의 구간에서 ‘○○女’의 꺾은선과 ‘○○男’의 꺾은선이 서로 평행하게 움직여 왔다.

의문

- ‘○○女’가 ‘○○男’보다 더 많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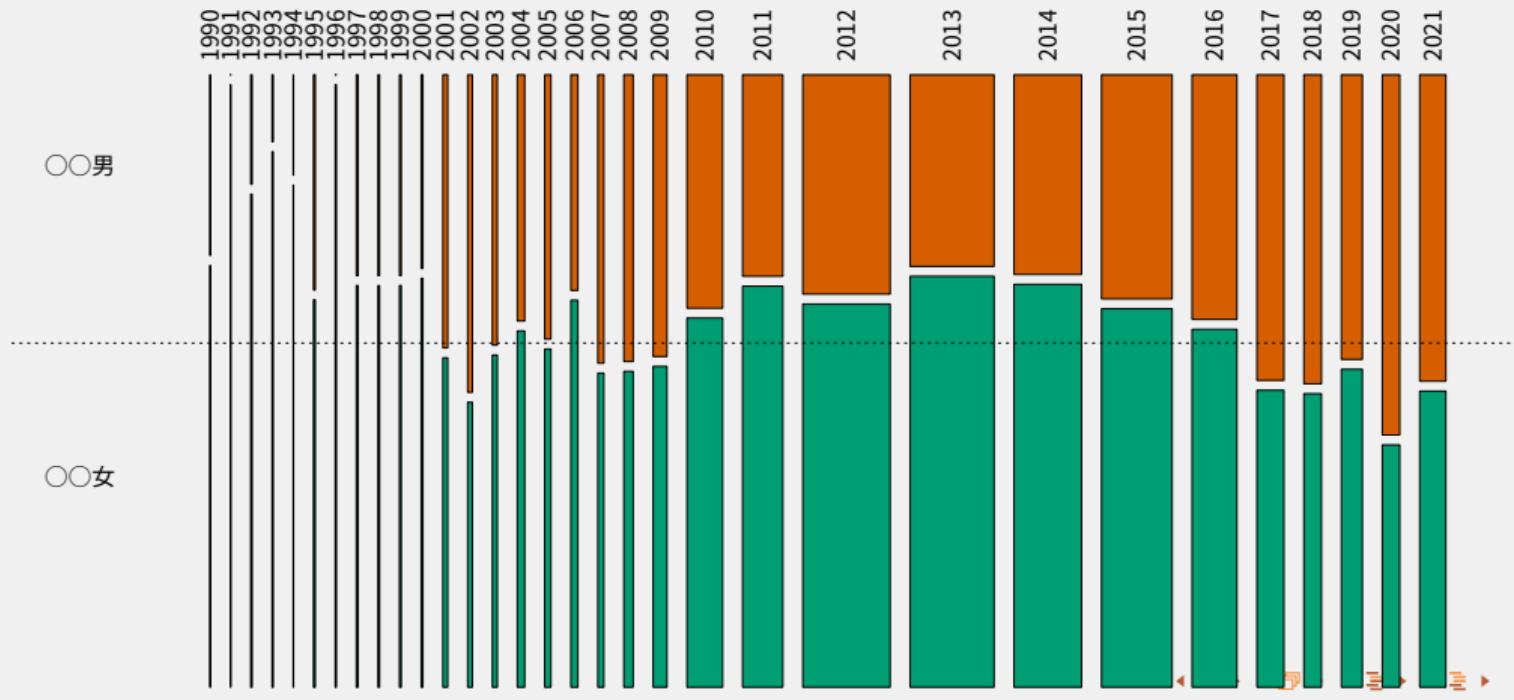
새로운 접근

- 표현의 출현 횟수를 직접 세어서 비교해 보자.

성별 접미사 사용 양상의 연도별 분석

성별 접미사 표현의 비율 변화

1990-2021년 신문 사회면 기사 제목에 나타난 '○○女'와 '○○男' 표현의 분포



성별 접미사 사용 양상의 연도별 분석

성별 접미사 표현의 비율 변화

관찰

- 2010–2016년 구간에서 ‘○○女’가 ‘○○男’보다 더 빈번하게 사용되었다.
- 2017년부터는 ‘○○男’의 사용량이 더 많아졌다.

참고

기사 제목의 ‘○○녀’ 사용에 대한 비판이 2016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성별 접미사 사용 양상의 연도별 분석

성별 접미사 표현의 가짓수

연도	○○女	○○男	女/男비
1990	4	3	1.33
1991	5	0	—
1992	11	2	5.5
1993	11	2	5.5
1994	4	1	4
1995	9	5	1.8
1996	11	0	—
1997	8	4	2
1998	7	5	1.4
1999	7	5	1.4
2000	10	8	1.25
2001	18	17	1.06
2002	17	12	1.42
2003	27	25	1.08
2004	47	29	1.62
2005	44	35	1.26

연도	○○女	○○男	女/男비
2006	43	28	1.54
2007	36	35	1.03
2008	43	37	1.16
2009	80	57	1.40
2010	190	120	1.58
2011	195	131	1.49
2012	317	241	1.32
2013	317	208	1.52
2014	272	181	1.50
2015	284	205	1.39
2016	202	176	1.15
2017	112	132	0.85
2018	78	93	0.84
2019	84	94	0.89
2020	65	94	0.69
2021	107	112	0.96



성별 접미사 사용 양상의 연도별 분석

성별 접미사 표현의 가짓수

관찰

- 2016년까지는 ‘○○女’ 꼴의 어휘가 더 다양하다.
- 2017년부터는 ‘○○男’ 꼴의 어휘가 더 다양하다.

해석

- 소수의 고빈도 표현 때문에 출현 횟수가 많아진 것이 아니다.

결론

요약

뉴스 기사 제목에 출현한 ‘女’와 ‘男’의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 1 두 한자가 접두사로 사용되었을 때 차이가 두드러진다.
- 2 접미사로 사용되는 경우 비연령 표현에서 차이가 두드러진다.
- 3 2016년까지, 특히 2012년부터 ‘○○女’의 사용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 4 2017년부터는 ‘○○女’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男’이 증가하였다.

한계 및 후속 연구

- 한자어를 위주로 전체적인 추세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 구체적인 표현들의 쓰임에 대해서는 더 다양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 <https://github.com/suzisuti/news-title-gender>